

3곳이 1%P 안팎 초박빙 ... 양자대결 땐 판세 '출렁'

총선 여론조사 분석해 보니 ...

목포·여수·광양, 2위와 30%P 이상 격차 지지율 1위 후보 3~4명 컷오프 탈락 가능성

민주통합당의 컷-오프를 앞두고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 총선 판세는 한 마디로 혼전 양상을 보였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지역구 20곳 가운데 11곳에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4.4%p) 내외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민주통합당이 컷-오프를 통해 양자 구도로 국민 경선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부동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선거 구도도 혼전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일단 지지율 측면에서 2위 후보와 30%포인트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며 안전권에 접어들어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구는 3곳이다.

민주통합당 단독 후보로 등록된 유은근(광양) 예비 후보와 박지원(목포), 주승용

(여수) 예비 후보 등이다.

광산 을의 이용섭 의원은 민주통합당 단독 후보로 등록했으나 통합진보당 황치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23%대에 머물렀다.

반면, 광주·전남지역 20개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지지율에서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구는 동구, 서구 을, 북구 갑, 북구 을, 광산 갑, 순천, 담양·곡성·구례 등 7곳이나 된다.

광주 북구의 경우, 다자대결에서 최경주 예비 후보와 김재균 의원의 지지율 차이는 0.9% 포인트에 불과,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광주 동구의 박주선 의원과 양형일 전 의원이 지지율 차이는 1.6%포인트에 불과했으며 광산 갑의 김동철 의원과 전갑길 전 의원의 지지율은 4% 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담양·곡성·구례에서는 국창근 예비 후보와 고현석 예비후보가 0.7%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순천시에서 노관규 전 시장과 김삼동 의원이 4%포인트의 지지율 차이를 나타냈다.

여기에 1위와 2위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를 가까스로 넘어서 지역구도 광주 서구 갑과 함평·영광·장성, 영암·장흥·강진, 고흥·보성 등 4곳으로 조사됐다.

함평·영광·장성의 경우, 이낙연 의원과 이석형 예비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9.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구 2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곳에서 지지율 접전 및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컷-오프를 통해 양자대결로 국민경선을 치를 예정인데 따라 선거 구도는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정체성과 면접 심사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소 낮더라도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 1위를 보이고 있는 후보들 가운데 많게는 3~4명 이상, 민주통합당 컷-오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국민 경선이 양자 대

결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선거 구도의 유동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해남·진도·완도의 경우, 완도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 김영록 의원이 지지율에서 상당한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해남 출신 예비 후보와 양자 대결이 이뤄질 경우, 선거 판세가 출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상 유권자가 완도와 진도에 비해 많은 해남 출신 예비 후보들 간의 단일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균 35%대를 기록한 부동층도 이번 총선 구도에 변수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광주 남구와 북구 을의 경우, 부동층이 각각 62%, 47%에 이른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표심의 함태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부동층의 표심이 20%대로 크게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선거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통합당 컷-오프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지율의 의미가 반감된 상황"이라며 "민주통합당의 컷-오프 결과가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이버 부정선거 감시

4·11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 시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부정선거 감시단원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권자 35%가 마음 아직 못 정해 판도 따라 표 쏠림현상 나타날 듯

부동층 선거 최대 변수

이번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부동층 비율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선거구별 부동층 편차는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광주일보 등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광주·전남지역 20곳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평균 부동층은 35.28%였다. 그간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평균 부동층은 40% 내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층은 선거·투표에서 어느 후보를 택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나 바뀔 생각이 있는 층을 말한다.

부동층 비율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광주 남구로 62.8%였으며, 가장 낮은 선거구는 23.7%를 기록한 광산 갑 선거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선거구간 격차는 39.1%포인트였다.

이 같이 각 선거구간 격차가 나

는 이유는 각 선거구별로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 때문이라는 게 한길리서치 측의 설명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을수록 부동층 비율이 낮게 나오는데,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적을수록 부동층 비율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향후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한길리서치 측의 분석이다.

부동층의 경우 후보자를 정하지 못했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들은 후보자의 인물 토크보다는 정치 판도에 따라 후보자를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부동층 표는 쏠림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이들의 표심이 어떤 식으로 잡느냐도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대개 여론조사를 하면 정치 무관심 20%·후보자 미지정 20% 등 40%

의 부동층이 나온다"며 "특히 우리 조사 기관은 응답자를 상대로 같은 질문을 두 번 이상 하지 않는 데, 이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층이 높다고 여론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부동층 비율은 각 선거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예상 투표율(반드시 투표한다)은 응답 비율은 69.8%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남구가 76.5%의 예상 투표율을 보여 가장 높았으며 전남에서는 함평·영광·장성이 73.6%, 해남·완도·진도가 71.3%의 예상 투표율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실제 투표율이 예상 투표율보다 통상적으로 10% 정도 낮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투표율은 50% 후반이나 60%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www.cdu.ac.kr

2012학년도 신·편입생 추가모집



- 인문사회계열 경영학과/사회복지학과/아동청소년상담학과/영어학과/한중정보문화학과/
- 공무원양성계열 군사학과/경찰행정학과/소방행정학과/
- 보건계열 간호학과/안경광학과/의약관리학과/치위생학과/이·공학계열 뷰티미용학과/조리과학부/건축·토목공학부/IT학부/
- 항공계열 항공운항학과/항공운항서비스학과/항공정비학과/예·체능계열 검도학과/경호비서학과/사회체육학과/실용음악학과/

2012학년도 신·편입생 추가모집		
접수기간	신입생	2.24(금)~2.25(토)
	합격자발표	2.26(일)
	등록금납부	2.27(월)
접수기간	편입생	2.13(월)~2.17(금)
	합격자발표	2.20(월)
	등록금납부	2.21(화)~2.23(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cdu.ac.kr 또는 전화 1577-2859로 문의 바랍니다.

초당대학교 + IUP대학
미국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초당대학교는 특성화된 학과와 국제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IUP학위와 초당대학교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1 취업률 전국 16위 / 광주·전남2위
*졸업생 1,000~2,000명 대학

초당대학교에서 더 큰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초당대학교
534-701, 전남 무안군 무안을 무안로 380
Tel 061 453 4960 1577-2859



그저 만만하게 家長 허리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일보와 (사)광주·전남언론포럼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총선 예비후보의 적합도 및 민주통합당 경선에 나설 후보 지지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임의결기(RDD)전화 면접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9세 이상 성인 남녀 1만명(광주 4000명, 전남 6000명·국회의원 지역구당 500명)의 유효 표본을 생성했다.

조사내용은 성별·연령별 등 기본 사항을 비롯,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후보 지지도, 투표 의향 등 총 3개 문항으로 했다. 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한편, (사)광주·전남언론포럼에는 광주일보 등 일간지 7사, 방송 4사가 가입해 있다.